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 들어선다

봉은사, 22일 전통불교 다선제(茶禪祭) 열고 건립 발원

점 은이들의 문화 중심지이자 외국인들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서울 삼성역 인근에 불교 다례와 참선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이 들어선다. 봉은사(주지 명진)는 11월 22일 법왕루에서 대한민국의 전통 불교 다선제(茶禪祭)를 개최하고, 봉은사 내에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 건립을 발원했다. 체험관 건립과 함께 사찰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례법을 정립하고 이를 세계화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봉은사 개산 1212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한민국 전통불교 다선제' 개막식에서 주지 명진 스님은 교무국장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앞으로 봉은사 내에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을 건립하고, 외국인들이 참선과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선 체험관 건립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례 행사와 차문화 대회 등을 개최해 불교 다례법을 정립하고, 이를 세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봉은사와 인근 코엑스 등은 하루 평균 2~3만여 명의 외국인이 머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다. 다선 체험관 건립은 바로 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문화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봉은사라는 지리적 이점을 심분 활용한다는 뜻이다. 또한 주말이면 30~40여만 명을 웃도는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는데, '차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들의 발길을 봉은사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교 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봉은사가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 건립의 첫발을 내딛었다. 사진은 11월 22일 열린 전통불교 다선제에서 지장 스님(초의차명상원장의 선자(禪茶) 시연 모습. 사진=박재원 기자

외국인 위한 참선·다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밝혀

여연 스님 "불교 다례법 정립·국제화 시급" 강조

관련 봉은사는 다선 체험관 건립에 앞서 불교 다례법을 복원한다는 계획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사찰마다 제각기 병행되고 있는 육법공양(六法供養), 헌다례(獻茶禮) 등의 불교 다례법의 통일안을 마련함으로써 불교 다

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봉은사 남대규 기획팀장은 "봉은사에는 지난 한해 3800여 명이, 올해는 5000여 명의 외국인이 찾아와 템플라이프를 체험했는데 프로그램 중 가장 호응이 높았던 것이

바로 다도체험"이라며 "통일된 다례법이 마련된다면 외국인들에게 불교 다례를 더욱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의차문화원(이사장 여연 스님(일지암 주)도 이날 '전통불교와 우리 차의 이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다례법 정립과 세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오늘날 국내 차계에는 각 차화나 사찰마다 검증되지 않은 다례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통일된 불교 다례법을 마련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문헌고증이나 사료검증 없이 '만들기만 하면 다'라는 인식 때문에 각종 행다례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 행다례의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불교 차문화 세계화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선다(禪茶)" 난립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선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 속에서 지혜로 획득되는 것임에도, 마치 차를 마시는 행위에 '선'이라는 말을 붙여 '차'를 마시면 무조건 깨달음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봉은사 다선 체험관도 차를 단지 기호음료로서 뿐만 아니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마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교 차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앞으로 전통불교 다례학술세미나와 불교다례시연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봉은사를 명실상부한 불교 차문화의 중심지로 가꿔나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oy@buddhapia.com



17. 정신의 음료

⑤ 송대 궁중의 차 문화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907~960)는 당이 멸망하고 북방의 유목민들이 흥기하여 남북이 융합되고, 북방 사회가 중원(중화)과 교류가 맞서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는 때였다.

오대십국은 직접적으로 당의 풍속을 계승했기에, 비록 당이 멸망했지만 많은 문화활동은 이어져갔다. 차 문화도 이와 같이 민족교류와 사상이 충돌하는 이 시기에 발전해 당대를 잇고 송대의 차 문화를 열어주었다. 더욱 남방의 오(吳), 촉(蜀), 강서성, 절강성에는 자원이 풍부해 싸우는 일이 북방에 비하여 적었다. 그

일반 백성들은 볼 수도 없었다. 용단차는 황제·친왕·공주에게만 공급되고, 봉 단차는 학사·장군에게, 유(乳, 차품의 한 종류)는 가까운 신하와 사대부들에게 하사하고, 백유(白乳)는 관청의 손님들에게 공급되었다. 이처럼 용봉단차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차였다. 공차제도도 일반 백성에게는 부담을 주었지만 좋은 차를 공납하는 관리에게는 높은 직책을 주기도 했다. 그 한 예로 선화 2년 정가간이라는 관리는 그의 조카를 시켜 명차를 구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주차(朱茶)를 구해오자 그는 아들에게 차를 주어 황제에게 바치게 했다. 이것으로 아들이 벼슬을 얻어 고향에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주차를 발견한 조카가 멀리서 울부

‘湯社’는 현대 차 전문가들의 품평에 영향 줌

공차제도로 궁중 음다 풍속 새로운 시대 열어

래서 많은 문인들은 음다(飲茶) 단체인 '탕사(湯社)'를 조직해 매일 차 끓이는 일로 서로 겨루어 맛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벌을 주었다.

관리가 된 문사들은 '탕사'를 열어 차의 품질을 평가하여 음다 활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탕사'는 송대의 '투차(鬪茶)'로 이어지며 결국 이러한 것들은 현대 차 전문가들의 품평에도 영향을 주었다.

좋은 차가 많이 생산되는 건안(建安)은 공차(貢茶)지역으로 조정에서는 이곳에 공차사를 파견하여 단차(團茶) 만드는 과정을 감독했다. 이곳의 단차는 민간에서 마시는 차와 구별하기 위해 모양을 새롭게 하고 용봉(龍鳳) 도안을 만들어 새겨 '용봉단차'라고 했다. 찻잎을 따는 시기부터 차를 만드는 기술과 포장까지, 제일 좋은 찻잎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공납했다.

황실에 공납을 한 후부터 단차는 더욱 정교해지고 많은 종류의 우수한 품질의 차들이 만들어졌으며 차는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었다. 공차는 용봉단차뿐 아니라 십여 가지의 품목이 있었는데 한해에 수량은 30여만 근이 되었다. 가격은 한 편(斤)에 수만 냥으로 차의 실제적 가치를 뛰어넘어 심리적 가치로 작용했고,

을 터트려야 사람들은 이 차를 '천리까지 원한'이 가득하다'고 하여 '천리매인(千里埋人)'이라고 했다. 이러한 공차제도도 많은 폐단을 가져왔지만 궁중의 음다 풍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송 태조부터 모든 황제들이 차를 좋아하여 황제와 관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정의

모든 의식에 차를 이용하였고, 공묘(宗廟)에 차를 올려 국가 구원으로 삼아 공중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조정에서 큰 연회가 있을 때 황제 앞에는 항상 차상(茶床)을 차려주고 조의(朝儀) 중에는 다례를 했다.

사신을 접대할 때나 고별할 때는 연회에서 차와 술을 하사하는 것을 예로 하였다. 왕들은 왕비를 맞이할 때 예물(聘物)·술·비단 외에 '차백근'을 주었다. 후에 민간에서도 정혼할 때 다례를 하는 풍속이 생겼다.

황제가 순례할 때 그 지역의 노인들에게 비단옷과 차를 하사하고, 절을 지날 때도 승려와 도인들에게 비단과 차를, 국자감을 시찰할 때도 학생들에게 차를 하사했다. 황제의 음다는 자연히 지존의 지위를 상징한 만큼 사치로 흐르는 폐단도 품격이 있었는데 한해에 수량은 30여만 근이 되었다. 가격은 한 편(斤)에 수만 냥으로 차의 실제적 가치를 뛰어넘어 심리적 가치로 작용했고,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소룡 단차도(小龍團茶圖)

‘차맛 좋게 하는 다기’ 나온다

자성 재료인 페라이트 성분 유약에 혼합 제작

차잔의 물을 자화수로 만들어 차맛을 좋게 하는 기능성 다기가 곧 선보인다. 경북 문경 향당유 김익주(47·상주대 신소재공학과 겸임교수) 대표는 자성 재료인 페라이트를 유약에 혼합, 소성시킨 자성다기 개발에 성공해 특허출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개발한 자성 다기는 온도가 섭씨 800~1000도에 이르러 사자지는 자성을

12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소성하는 장차기(磁器)에서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자성 유약을 위해 자성의 S극과 N극을 혼합시키는 다극(多極)과 N극을 인접으로, S극을 바깥쪽으로 배치하는 라디알(放射) 등의 방법을 사용해 자성 소멸을 막았다. 다기 표면에 페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찻잔의 물이 자장 속을 수직으로 통과하면

물의 분자 구조가 이온화(離子化) 되어 인체에 유익한 육각형 구조수로 자화 처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김 대표와 상주대가 분석한 결과 자성 다기에 우려낸 차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녹차 속의 카테킨(타닌) 함유성분이 일반 다기에서 우려낸 차보다 20배나 많이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도자기를 만들면서 전통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자기에서 우려내는 차맛과 농도를 가지고도 더 좋은 맛을 낼 수 없을까 생각하다 육각수에 착안, 자성 다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2년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전에 '계열배'를 출품해 문화관광부장관 상을 받은 바 있다.

여수령 기자

보이차 전문점

진년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외 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대한민국 전통불교인사상 융합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마시는 불교계의 대표 대중화차로서 불교 속의 문화·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문화목표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11월호에서는 연속기획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의 마지막 주역인 '사(死)'를 종교적 시각에서 조명해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한 생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생을 시작하는 죽음..... 생(生)과 사(死)가 들어 아님을 인식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필자가 떠난 스승인 문화기행, '달중 스님의 어린 시절'을 비롯하여 느끼게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한호를 읽고 떠나는 여정' 등 경쟁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에 위안을 주고 휴식 같은 감동거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설가 김중현이 추구하는 네 가지 속의 정답

현장 속으로 | 2006 한한 일간지 선정 특별

일중 소설의 특장점 | [2] 어떤이 명성,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연속기획 |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 - 사(死)

삼기 죽음의 개념

자유쓰러의 죽음, 일대포서의 죽음

다메르 바르도의 가르침 - '다메르 사자의 시'에 나타난 사후세계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편안한 죽음으로 보나

죽음, 어떻게 준비하?

독자들 대상 | 정년(정년)다 - 독자(독자)가 행복한 돌봄에 난 문이 아름다운 것임, 문명(文明)의 종말 소설의 불교(佛敎)란 무엇인가 ● 사찰에 갖는 의미

윤영철교 | 불교(佛敎)의 사(死)와 마음(心)의

영원불교 | 영연(영연) ● 서울 구룡사 리모트

정원(정원) | 봄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총체(總體)를 추구하는 한(韓)의 영수(靈修) 정연수

목의 티 | 불교(佛敎)의 생명(生命) - 석굴암 '천심과 수심'을 배설과 법공(法公)으로

작업(作業) | 한(韓)의 무경(無經) 이상은

한호를 읽고 떠나는 여정 | 관공(關公) 백화(白化)는 노루(鹿)가 아니라 작은 비둘기(鳩)를 찾아서 | 여정(旅程)을 떠날 때

필자가 떠난 스승인 문화기행 (8) | 파카소(파카소)와 비르르르나(비르르르나) 만수(萬壽)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 스티븐 헬먼 'Crystal Bowl Healing'

지리산 (대한 스승에게 배우는 한(韓)의 건장(健將) 기(氣)를 들을 때) 대한 한(韓)의 사(死)를

영자(영자) 하(하)에 들어오는 테(테)이(테) ● - 서울의 공(公)법

11 2006

www.buddhistculture.co.kr 광고 및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社)단])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찬정 보급!!

법 요 집

기 초 교 리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천왕합니다
 - 반야심경
 - 인경
 - 정법가
 - 법문
- 기초교리
 - 1. 불교란?
 - 2. 부처란?
 -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 5. 사찰경내 예법
 - 6. 합장과 반배
 - 7. 고두례
 - 8. 예불문
 - 9. 삼보
 - 10. 삼귀의
 - 11. 삼법인
 - 12. 삼학
 - 13. 삼학
 - 14. 신도요계
 - 15. 사성제
 - 16. 사성법
 - 17. 십이인연
 - 18. 육바라밀
 - 19. 팔정도
 -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담도 크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곁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